

외국의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분석 연구

-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를 중심으로 -

민 경 훈*

이 논문은 우리나라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의 효과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해 보고자, 외국 6개 나라의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 동향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국가는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의 6개국이다. 연구의 중심 대상은 음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관련 영역이다. 연구의 결과, 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음악'이라는 독립 교과 혹은 예술과 관련된 교과에서 음악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음악 활동에서 신체 표현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음악에 대한 애호심, 창의성 계발, 다양한 음악적 경험, 즐거운 생활 함양, 미적 감수성 계발, 비평 능력 기르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 이해하기, 협동심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음악교육, 초등학교 음악, 음악과 교육과정

차 례

- I. 서론
- II.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 1. 성격
 - 2. 목표
 - 3. 내용
 - 4. 교수·학습 방법
 - 5. 평가
- III. 결론 및 제언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론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은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또다시 2009년에 통합교과 B라는 명칭으로 개정이 추진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49~51). 내용의 핵심은 3학년 이후의 교과 수를 줄여 교과군을 설정하면서 이와 일관되게 저학년의 통합교과 교육과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결국 개정 시안 연구가 수행되었다(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2009). 개정을 위한 연구의 처음에는 통합 교과 ‘즐거운 생활’이 음악과 미술의 내용을 포함하고 체육을 분리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나, 그 후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논쟁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결국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의 독립적인 분리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체육의 분리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교육과정에서 계속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면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즐거운 생활’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시사점을 찾고자 외국 선진국들의 초등학교 1·2학년 음악 혹은 예술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논의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진국인 6개 국가,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를 대상으로 국가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 1·2학년 음악교과 혹은 예술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고찰·분석한다. 위의 6개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교육 관련 연구를 할 때 비교 국가의 본보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가이며, 또한 선진국 모델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 <표 1>은 각 국가별 분석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이다.

<표 1> 각 국가별 분석 대상 교육과정의 소개

국가	발행자, 발행연도 및 교육과정 명
일본	日本文部科學省(2008). 新學習指導要領 , 日本: 文部科學省
미국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2008). Indiana Academic Standards for Music . Retrieved June 25, 2010.
영국	Art and Design [Brochures](2007).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 London, England.
프랑스	Ministère èducation national(2008). French Curruculum Kindergarten & Primary School , French: Ministère èducation national
독일	Ministerium fu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u.a.(2009). Rahmenplan, Grundschule, Musik , Germany: Roggentin
핀란드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200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 . Vammala, Finland: Vammalan Kirjapaino Oy.

미국에는 정부가 제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없으며, 각 주별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음악과의 경우 MENC(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가 개발한 국가 음악과 기준(National Music Standards)을 토대로 주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정은 적용 방식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50개의 주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교육과정, 즉 인디애나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였다. 또한 독일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였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주 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수학연한, 입학시기 등 학교 운영이 주마다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교육과정이 베를린 주까지 포함한 독일에서 가장 큰 지역에 속하는 교육과정일 뿐만 아니라,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초등학교(Grundschule)가 4학년까지 있는데 반하여 브란덴부르크 주의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비

슷하게 초등학교 6년제 과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브란덴부르크의 교육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처럼 6개 국가의 교육과정들 모두가 똑 같은 공통된 내용 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 국가별로 내용 틀이 다르다는 것은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도 효율적 연구를 위한 논리적·합리적 절차 방식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틀을 기준으로, 즉 음악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순서에 따라 6개국의 교육과정을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II. 초등학교 1·2학년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1. 성격

음악 교과와 성격은 음악교과와 본질 및 음악교과와 목적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학교가 음악을 교과와 하나로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음악과 성격'이라는 항목을 따로 설정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음악과 개정의 취지에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그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일본은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 음악에 대한 풍부한 감성, 음악활동의 기초적인 능력 배양, 풍부한 정서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성격'이라는 특별한 항목이 없이 서술형태로 진술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인디애나 주에서는 음악을 주요 과목으로 다룬다. 이 교육과정은 1·2학년에서 연주하기, 창작하기, 음악을 읽고 기보하기, 음악을 평가하기, 음악에 반응하기, 타 교과와 연관하여 이해하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등을 주요 내용으

로 다룬다. 또 다른 주, 즉 미시간 주에 있는 앤아버 시(City of Ann Arbor, Michigan, USA)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창작 및 연주', '분석 및 비평',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 '심미적 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두 주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하기'(연주 및 창작), '미적 감수성 계발', '비평능력 기르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이해하기' 등과 관련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초등학교 1·2학년에 독립된 음악교과가 없고, 통합교육과정에 의거한 예술(Arts)이라는 교과가 있다. 음악은 3학년부터 독립된 교과로 나타난다. 영국의 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Primary handbook, 2010)은 '성격'이라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목적을 진술함으로써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학습을 즐기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충만한 삶으로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술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연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즐겁게 음악을 체험하는 것',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독립된 음악교과가 없고 '예술과 예술의 역사'라는 교과가 대신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성격'이란 항목은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소제목 아래 성격적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2학년 예술교육은 학생들이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예술의 역사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작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정부의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주(州)정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 교육과정을 기초로 각 학교들이 학교단위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독립된 음악교과가 있으며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목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과

제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경험 능력을 폭넓게 확장시켜 주며 그리고 표현 능력을 기르는 근본적인 교육으로서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듣기 그리고 음악에 따른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복돋아 주어야 한다.

핀란드에는 1·2학년에 독립된 음악교과가 있다. ‘성격’이라는 뚜렷한 항목은 없지만 성격적 내용이 서술 형태로 지면에 소개되어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악교육의 임무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돕고, 음악적 활동을 장려하며, 자기 자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

2. 목표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 별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할 수 있다.

일본은 음악교과의 궁극적 목표로서 “표현 및 감상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과 음악에 대한 감성을 기르고 음악활동의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학년 목표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제시되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없고 각 주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각 주는 음악과와 관련하여 MENC(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가 개발한 국가 음악과 기준(National Music Standards)을 토대로 주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 교육과정은 목표를 크게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 항목은 ‘음악 연주하기’, ‘음악 창작하기’, ‘음악에 반응하기’이다. 항목별로 제시된 기

준은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다양하다.

영국은 목표를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2학년에 해당하는 1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넓은 범위의 음악을 주의 깊이 듣고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늘어가는 자신감과 함께 상상과 조절을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억으로부터 다양한 노래들을 부르고 반주를 하며, 짧은 곡들을 창작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소리와 고요함이 어떠한 분위기와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 탐험하고 즐겨야 한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목표는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활동 프로그램은 유치원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이 무엇을 이미 습득하였는가를 점검하고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독립된 음악교과가 없고 '예술과 예술의 역사'라는 교과가 대신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 어린이들은 예술 활동으로서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능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도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기호와 취향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의 사용법을 배우고, 예술 작품과의 첫 경험을 통해 관찰, 감상, 묘사 그리고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1·2학년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노래를 배우고, 여러 작품에서 발췌한 음악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독일의 학교는 주정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각 학교가 재구성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과 미술은 1학년에서부터 각각 독립된 교과로 구분되어 있다. 음악교과 수업 시수는 기본적으로 주당 2시간 정도로 배당된다. 음악교과의 목표에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하게 진술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예술에 대한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음악교육에서 공동체적 활동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독일의 음악교육이 사회성, 협동심 강화 등을 통한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중요하

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은 언어적 능력, 비판적(비평) 능력 그리고 논리의 전개 등 지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부각시키며, 그리고 타 교과와의 학습을 연계한 통합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핀란드의 초등학교 1·2학년에는 독립된 음악교과가 있다. 핀란드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목별로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고, 음악적 활동을 장려하며, 자기 자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역시 음악이 생활(시간과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것도 음악교육의 주요 목표이다. 특히, 음악적 표현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소리의 세계와 음악을 경험하도록 해 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3. 내용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과 목표의 방향에 따라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양과 수준의 적정화 그리고 학생의 능력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선정·조직되어야 한다. 각 국가별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의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와 함께 내용도 학년 별로 제시되어 있다. 내용의 체계는 ‘표현’과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을 지도할 때 함께 지도해야 할 내용을 ‘공통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현 및 감상 활동 내용과 공통사항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일본의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중 '내용' 분석

영역	영역별 내용
표현	- 가창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 노래를 듣고 따라하거나 계명으로 모창하거나 암송하기 - 가사가 나타내는 정경과 기분을 상상하거나 악곡의 기분을 감지하고 느낌을 갖고 노래 부르기 - 자신의 노랫소리 및 발음에 주의하여 노래하기 - 서로의 노랫소리와 반주를 듣고 소리를 맞추어 노래하기 - 기악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 연주를 듣거나 리듬악보 등을 보면서 연주하기 - 악곡의 기분을 감지하고 느낌을 갖고 연주하기 - 주변의 악기에 친숙해지고 음색에 주의하여 간단한 리듬과 선율을 연주하기 - 서로 악기의 음과 반주를 듣고 음을 맞추어 연주하기 - 음악 만들기의 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 목소리와 주변소리의 색다름을 알고 소리 놀이하기 -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고 음악의 짜임새를 살리며 창의적으로 간단한 음악 만들기 - 표현교재는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다룬다. - 주된 가창곡에 관해서는 각 학년 모두 공통 곡을 포함하여 제창 및 돌림노래로 부를 수 있는 악곡 - 주된 기악곡에 관해서는 이미 배운 가창곡을 포함해 주선율에 간단한 리듬연주와 저성부 등을 첨가한 악곡 - 공통교재: [1학년] <바다>(문부성창가), <달팽이>(문부성창가), <히노마루-태양을 본뜬 동그라미>(문부성창가) [2학년] <숨바꼭질>(문부성창가), <봄이 왔다>(문부성창가), <별레소리>(문부성창가), <석양>
감상	- 감상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 악곡의 기분을 느끼며 듣기 -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관련성을 감지하고 듣기 - 악곡을 듣고 상상한 것과 감지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등 악곡과 연주의 즐거움을 알기 - 감상교재는 다음에 나타낸 것을 다룬다. - 일본 및 다른 외국의 전래동요와 놀이노래, 행진곡과 무용음악 등 신체반응의 유쾌함을 감지하기 쉬운 음악,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정경을 생각나게 하기 쉬운 악곡 -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의 작용을 감지하기 쉽고 친숙하기 쉬운 곡 - 악기의 음색과 목소리의 특징을 감지하기 쉽고 친숙한 여러 연주 형태에 의한 악곡
공통	-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 중 다음의 'a'와 'b'를 듣고 그들의 활동이 자아내는 좋은 점과 재미와 아름다움을 감지할 것 - 음색, 리듬, 속도, 선율, 강약, 박자의 흐름과 호흡 등 음악을 특징짓는 요소 - 반복, 절문과 대답 등의 음악의 짜임새 - 주변의 음표, 쉼표, 기호와 음악과 관련된 용어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이해할 것

2) 미국

미국 인디애나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성취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2학년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학년별로 ‘기준’ 영역이 각각 9개씩 구성되어 있고, 기준 영역별로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이 2~6개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1·2학년에 성취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표 3> 미국의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중 ‘내용’ 분석

영역	1학년	2학년
기준 1 (연주)	- 음악 연주하기: 혼자 또는 함께 노래 부르기 - 넓은 범위의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적절한 음질과 악상, 좋은 자세, 정확한 빠르기로 노래하기	- 음악 연주: 혼자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기 - 정확한 음의 높낮이, 적당한 음질, 좋은 발음,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다양한 음악 노래하기. - 오스티나토로 노래하며 지휘자의 지시 따르기
기준 2 (연주)	- 음악 연주하기: 혼자 또는 함께 악기 연주하기 - 학생들은 신체 타악기를 이용하여 짧은 패턴들을 연주하고, 음정이 있는 교실악기와 음정이 없는 교실악기들을 연주하기 - 단체로 연주할 때 안정된 박자 유지하기	- 음악 연주: 혼자 그리고 함께 악기 연주하기 - 교실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인 빠르기로 선율을 악기로 연주하기 - 정확한 기술과 다양한 악상 정도를 사용하여 연주하는지 확인하기 - 지휘자의 지도를 따르기
기준 3 (창작)	- 음악 창작하기: 선율, 변주, 그리고 반주를 즉흥 연주하기 - 노래를 부르거나 신체 타악기 및 악기의 소리를 내면서 반응을 하고 간단한 반복을 즉흥 연주하기 - 노래와 연주를 하면서 반응하기	- 음악 창작하기: 선율을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변주하기 - 질문, 응답, 반복을 포함한 음악을 노래하거나 악기로 연주하고, 신체로 표현하기
기준 4 (창작)	- 음악 창작하기: 세심한 지도아래서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기 - 짧은 리듬, 선율 패턴, 그리고 반주를 문학의 예시로 만들기	- 음악 창작하기: 세심한 지도 아래서 음악을 작곡하고 편곡하기 - 세심한 지도 아래서 짧은 리듬과 가락의 유형을 만들기
기준 5 (반응)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을 읽고, 기보하고, 해석하기 - 연주 악곡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리듬과 음을 읽기 4분 음표, 8분 음표, 그리고 4분 쉬표를 인식하기	- 음악에 반응하기: 독보, 기보, 그리고 음악 해석하기 - 표준 기보법에 따른 리듬과 가락을 읽고 쓰며 연주하기
기준 6 (반응)	- 음악에 반응하기: 듣고, 분석하고, 음악 묘사하기 - 유사한 음악이나 다른 음악, 그리고 다양한 소리의 질을 구별하기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을 듣고 분석하며 표현하기 - 음악의 흐름과 용어들을 통해서 음악의 유사성과 차이점 인식하기 -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이해하고 음악 듣기

기준 7 (반응)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과 음악 연주를 평가하기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고, 교실에서의 음악활동을 평가하기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과 연주 평가 • 선호하는 음악과 음악적 취향에 대하여 토론하기 • 대조되는 음악작품들을 비교하고 연주하며 평가하기
기준 8 (반응)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과 다른 예술, 그리고 예술 외의 다른 교과와의 관계 이해하기 • 음악과 다른 교과와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 음악에 반응하기: 음악과 다른 예술, 그리고 예술 외의 다른 교과와의 관계 이해하기 • 다른 원리에서의 음악적 개념을 적용하기 • 음악과 다른 수단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기
기준 9 (반응)	• 음악에 반응하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기 • 음악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과 음악가를 경험하기	• 음악에 반응하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기 • 특별한 상황 및 역할을 위한 음악을 이해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과 춤을 경험하고, 음악가들의 세계와 역할 탐구하기

3) 영국

영국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음악과의 내용을 3개의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요 1단계’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주요 1단계는 5개의 작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1단계에서 학생들은 넓은 범주의 음악을 주의 깊이 듣고 신체적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감과 함께 상상하고 조절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기억하여 다양한 노래들을 부르고 반주를 하며 짧은 곡들을 작곡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리와 고요가 어떻게 다른 분위기와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 즐겨야 한다. 다음은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주요 1단계의 학습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영국의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 중 ‘내용’ 분석

[주요 1단계] 지식, 기술들과 이해	
지식을 적용하여 확실히 듣고, 연주하고, 그리고 작곡하고 평가하는 상호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킨다.	
1.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며 즐기는 기	• 일반적인 노래와 성가(chants)를 부르고, 리듬을 표현하는데 목소리를 사용하기

술을 통하여 소리를 조절하기	• 선율적인 악기와 선율적이지 않은 악기 이해하기 • 함께 연습하고 연주하기(예: 다 같이 시작하고 끝내기, 똑같이 박자 유지하기)
2.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음악적 생각하기 - 작곡하는 기술	• 음악적인 선율 창작하기 • 소리와 음악적인 생각을 탐구하고 선택하며 체계화하기
3. 반응하고 관찰하기 - 기술에 대한 평가	• 음악적 움직임, 춤, 언어의 표현, 음악적 언어 등과 관련하여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표현하기 • 자신의 활동을 발전시키기
4. 듣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 집중하면서 듣고 내면화시키며 그리고 기억하여 소리를 재생하기 • 음의 높낮이, 음의 길이, 셈여림, 빠르기, 음색, 형식, 고요함과 같은 음악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탐구하고, 간단한 구조 안에서 표현력 있게 활용하기(예: 시작, 중간, 끝) •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 만들기(예: 목소리, 손뼉, 악기),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신호와 상징들을 발견하기 •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음악 사용하기(예, 춤을 위하여, 자장가로서)
5. 학습의 넓이	• 음악적 활동들의 범주는 연주하고 작곡하며 평가하는 것을 통합한다. • 음악적인 것과 음악적이지 않은 것에 반응하기 • 혼자서 작업을 하거나, 크기가 다른 그룹 혹은 학급에서 작업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로부터의 음악 이해하기

4) 프랑스

프랑스의 초등학교에서는 독립된 음악 교과가 없기 때문에 음악은 여러 교과 영역들에서 다루어진다. 즉, 교과목 ‘예술과 예술의 역사’, ‘인류학’, ‘역사와 지리’, ‘예술의 역사’ 등에서 음악이 다루어진다. 특히, 교과목 ‘예술과 예술의 역사’는 음악 교육과 시각 미술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예술적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사와 관련된 문화적 자료를 통해서 예술적 감성과 표현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감정, 기분, 기호,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학습하게 된다. 처음 접하는 예술품은 학생들이 이를 관찰하고 듣고 묘사하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표 5>는 교과목 ‘예술과 예술의 역사’에서 음악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나타나는 음악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예술관련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 프랑스의 초등학교 1·2학년 예술 관련 교과목 및 내용분석

교과목명	내용
예술과 예술의 역사	•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은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도 개발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느낌, 감정, 기호 그리고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언어사용법을 배우며, 예술작품의 첫 경험을 통해 관찰, 감상, 표현 그리고 비교하는 법을 배운다. • 1·2학년 과정의 음악교육에서는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시와 노래를 배우고, 여러 작품에서 발췌한 음악 듣기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정확한 가락, 리듬, 음색, 빠르기, 바른 호흡, 바른 발성, 합창, 주제에 따른 음악적 특징, 악기의 종류 등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시각예술의 영역처럼, 음악교육 영역에서도 예술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 주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음악작품들을 처음으로 수용을 한다. 학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지에 따라 기념관, 박물관, 스튜디오 또는 공연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인류학	• 인류문화와 그 역사, 지리, 예술, 시민수준은 예술사의 시작과 함께 성장해 왔다. 인류학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문명, 사회, 세력, 종교, 예술, 진화 등에 까지 이르게 한다(인류학은 시대, 공간, 문화 그리고 문명까지 포함하여 언급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역사와 지리	• 예술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 형태에서 미적 감각, 심화된 표현, 창조성, 손 기술 등을 발달시키고, 학생들이 작업 진행과 기술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예술사를 학습한다는 것은 예술 역사상 위대한 작품에 대하여 감각과 판단을 배우는 것이다.
예술사	• 교과목 '예술의 역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유산 또는 현대예술을 가까이 접하게 만든다. 예술작품은 특정 시대와 지리적 위치(교과목 '역사와 지리'에서 나타나는 연대적 혹은 지리적 언급에 기초함), 표현의 형태(소묘, 그림, 조각, 건축, 응용미술, 음악, 무용, 영화), 또한 이에 필요한 기술(유화, 판화), 직업기술, 생산활동과 관계된다. • '예술의 역사'는 다른 교과목들과 연계하여 인류의 예술적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다양한 시대와 다른 지역의 문화와 관련해서 현 예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해 준다. 학생은 광대한 범위의 예술작품들과 마주하면서 그 것들의 귀중함, 영구함 그리고 예술적 창조물의 다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예술사의 범주 내에서는 예술품의 진가를 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루고, 학생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기념관, 박물관, 스튜디오, 공연장 혹은 영화관을 방문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의 목적은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활동(그들의 마을이나 지역에서)을 통해서 학생들의 예술적 지식과 예술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에 있다.

특히, 교과목 '예술의 역사'는 역사적 시기를 6개로 구분하고, 각 시기 안에서 다음과 같은 예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① 공간예술: 건축, 원예, 도시 ② 언어예술: 문학, 시 ③ 일생생활에서의 예술: 예술품, 가구, 보석 ④ 음향예술: 음악, 노래 ⑤ 생활예술: 드라마, 무용, 서커스 ⑥ 시각예술: 미술품, 영화, 사진, 디자인, 디지털 아트

5)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중 1·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 활동은 크게 ‘음악 만들기’, ‘음악 듣기’, ‘음악을 다른 예술로 표현하기’ 그리고 ‘악보와 음악에 대한 개념 이해하기’ 등 4가지 활동영역으로 구분된다. 음악수업에서 이 4가지 활동영역들은 서로 통합적으로 취급된다. 어린이들은 통합적 방법을 통해서 노래, 연주, 창작, 발견, 감상, 인식을 하고, 또한 무용, 연극, 그림 활동을 행하며, 또한 악보를 배우는 기회를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중 1·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1. 음악 만들기	
음악 만들기 영역에서는 무엇보다도 놀이-실험적, 즉흥적 그리고 경험적 활동의 가능성이 제공된다. 이 음악 만들기 영역은 가창, 기악 그리고 리듬과 가락의 창작 등을 포함한다.	
- 가창: 따라 부르기, 전자 매체를 통한 노래 듣기와 함께 부르기, 악보 부르기, 다양한 가창 형태의 고려(예: 학급에서의 가창그룹 편성, 여러 악기들의 반주, 신체동작으로의 전이) 등 - 발성 지도: 편안한 자세, 올바른 호흡, 정확한 발음, 알맞은 음폭의 선택 등 - 목소리 놀이: 소음의 모방, 운율, 다양한 소리의 표현, 환상적인 언어 등 - 반주, 창작, 연주: 오르프 악기 및 신체악기 활동, 스스로 만든 간이 악기 연주, 간단한 리듬의 반주, 짧은 가락의 반복적인 형태(오스티나토), 학교 외의 사회나 가정에서 배운 악기 연주, 간단한 즉흥창작 등 - 음향 놀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활용하여 동화, 그림, 천둥 등을 표현, 간단한 음악형식의 경험(예: 순서: A-B-C/ 대비: 많은 악기-적은 악기-하나의 악기) 등	
2. 음악 듣기	
음악 듣기를 위한 수업은 관조하는 태도와 음악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 음악 듣기: 음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주의 깊은 귀 기울임, 음악 양식의 경험, 음악-쉽, 목소리나 악기를 통한 음향적 실험 등 - 음악 구별하기: 음의 세기, 빠르기, 소리를 듣고 악기 구별하기 등 - 음악 형식 파악하기: 간단한 음악의 구조 파악, 반복과 변화 인식, 대조적인 부분 구별 등 - 음악에 관하여 생각하기: 악곡의 종류와 시대에 따른 음악의 가치 이해, 작곡가의 의도 파악, 음악의 효과에 관하여 생각하기 등	
3. 음악을 다른 예술로 표현하기	
어린이들은 음악을 자신들의 환경 안에서 한 측면으로만 고립시키지 않고, 신체적, 언어	

적 그리고 조형적 형태와 같은 다른 표현 영역들과 연관시키면서 경험을 한다(예: 무용, 영화, 쇼, 광고, 연극, 축제 등을 통하여).

- 신체 동작, 무용: 신체적 동작 및 신체적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기, 음악을 들으면서 신체적 동작으로 바꾸기, 빠르기와 박자에 따라 보통으로 걷거나 빠르게 걷고 또는 경충경충 뛰기, 한 악절의 끝을 다시 출발점으로 하여 자신의 신체적 동작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교대시키기(A-B-A = 남자-여자-남자), 노래, 카논 그리고 기악곡 등을 신체적 동작과 춤의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등
- 무대 표현: 스스로 만든 음악, 감상 곡 혹은 오페라의 한 부분을 무언극, 인형극, 그림자 연극 등에 사용하기, 스스로 창작한 이야기에 배경음악 만들어 붙이기, 연극에 알맞은 음악을 스스로 창작하거나 또는 악곡을 선택하기 등
- 그림 표현: 음의 높고 낮음, 음의 강약, 음색의 변화, 음들의 밀집, 강조되는 리듬의 형태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등

4. 악보와 음악적 개념 이해하기

악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고,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역시 음악 수업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음악 만들기, 음악 듣기, 음악 바꾸기의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 악보: 음의 높낮음, 음의 길이, 음의 세기, 음향과 소음, 음의 밀집 등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기
- 음악에 관한 토론: 언어의 표현능력 기르기, 음악을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 음악의 흐름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기

6) 핀란드

핀란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1~4학년을 묶어 음악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학년~4학년 어린이들은 재미있고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표현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교육과정의 음악과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핀란드의 초등학교 1~4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초등학교 1~4학년 교육과정의 내용
1. 활동내용
• 언어·일상적인 대화·목소리를 사용하여 나이에 알맞은 음악놀이하기 • 모듬별로 가창곡을 준비하고 노래 부르기 • 함께 연주하고, 리듬악기, 가락악기, 화음악기, 신체악기를 사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리듬감을 기르기 •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신체활동하기 • 다양한 음악을 듣고 각자의 경험과 떠오르는 생각 표현하기 • 반복기법을 사용하여 작곡하기 • 소규모 악곡을 창작하고 즉흥연주하기 •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이해하기(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형식) • 음악하기, 감상하기, 신체표현하기, 창작하기를 통합하기 • 핀란드와 다른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안내하고,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수반하는 가창곡, 기악곡 그리고 감상곡 다루기

2. 효과적인 연주를 위한 4학년말 지침서

- 다른 학생들과 조화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발성하는 법을 배운다.
- 악곡의 기본 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악활동과 합주활동에 참여한다.
- 연주 목록의 곡들을 완전히 익히고, 일부는 외워서 연주한다.
- 소리, 신체표현, 리듬, 가락을 사용한 합창, 질문과 응답, 독주와 합주 등의 활동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모둠의 일원으로서 음악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학생들은 감상을 통해 음악을 인지하고, 단어·이미지·신체표현 등을 통해 음악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음악을 하는 모둠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하며, 구성원을 배려하는 방법을 안다.

4. 교수·학습 방법

같은 학습 내용이라도 교수법에 의해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60).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교수·학습 방법’의 항목이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을 지도한다.”와 같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도방법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수·학습 방법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교육과정에는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특정한 항목이 없으며, 지도하여야 할 내용을 행동적 용어를 사용하여 진술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학습목표의 수준에서 활동내용을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고 있다(예: “노래를 불러보자”). 이러한 체계는 교사가 지도방법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 ICT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항목은 없으나, ‘학습의 범위’라는 항목을 통해서 지도방법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 민속음악과 대중음악을 포함한 낯선 장르의 음악들에 대하여 감상지도를 하여야 한다.

- 악보를 읽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노래를 반주할 수 있도록 반주법을 가르쳐야 한다.
- 상상한 것을 음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ICT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 음악공연에 참석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프랑스의 국가수준 프로그램은 지도하여야 할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다만, 교사는 학생들이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예술의 역사를 배울 때 직접적으로 예술작품들을 대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국가수준의 프로그램에 제시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택하여야 한다.

독일의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의력, 표현능력, 인지능력 계발에 중심을 두고 어린이들의 음악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간단한 형태 안에서 다양한 음악활동들, 즉 간단한 노래, 언어노래, 신체적 표현, 그림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기악합주, 소리듣기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초등학교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오르프의 지도방법이 자주 활용되고, 오르프 악기들을 중심으로 다루며, 또한 즉흥연주와 관련하여 그래프 악보들을 자주 사용한다. 학습 형태는 일반적으로 '음악 만들기', '음악 듣기', '음악 바꾸기', '음악 이해하기'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다른 교과와의 통합이 요구된다. 특히, 듣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노래 부르기과 연주하기를 중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수 방법의 선택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는 음악을 이해하고 개념화 하는데 필요한 활동, 즉 창작 및 감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음악적 활동과 탐구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수차례의 반복을 걸

친 장기간의 연습을 통해서 음악적인 능력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반복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전체적 표현의 발달은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들을 찾음으로써 강화되어질 수 있다. 이점에서 타 과목과의 연계도 자주 시도된다. 그리고 현대 기술과 매체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5. 평가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에 관하여 파악해 보는 과정이다. 이점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평가’ 항목이 없다. 교사는 음악수업 중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과를 평가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주 정부 수준의 평가와 지역 수준의 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주 정부 수준의 평가는 대부분 수학, 읽기, 쓰기,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 수준의 평가는 이 외의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주요 1단계’와 ‘주요 2단계’를 마칠 무렵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1단계의 평가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으로 학습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평가와 함께 외부에서 출제된 쓰기, 읽기, 맞춤법, 수학 문제도 함께 평가에 사용된다. ‘주요 2단계’의 평가과목도 ‘주요 1단계’와 동일하다. 시험문제는 읽기, 쓰기, 맞춤법, 계산기를 사용한 수학 문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학 문제, 암산, 과학 문제로 외부에서 출제된 것으로 평가한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지속적인 평가와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상담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달성하지 못한 성취목표나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 초등학교 1·2학년에는 개인별 가창과 기악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명 부르기도 없다. 이와 같이 독일의 음악 교육 과정은 기능적인 면에서 기초적인 정도의 수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음악과 평가는 개인 혹은 공동체 활동에서 학습의 발전상태 그리고 학습의 결과를 기록하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과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수준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학습과정 중의 중간 평가와 학기의 마지막에 행하는 최종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학습과정 중 평가는 학생들이 주어진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최종 평가는 학습이 끝난 다음 그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일본의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표현과 감상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과 음악적 감성을 기르고,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는 면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교육과정의 목표는 한국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학생의 음악성, 심성, 감성의 3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보면, 음악관련적 활동을 크게 ‘연주 및 창작’, ‘비평’, ‘역사, 문화, 사회적 관련성’, 그리고 ‘심미적 특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디애나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감각적인 활동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직접 음악을 만들고 경험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교육과정은 ICT의 활용과 어린이 수준에서의 음악문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개별적이고 감성적이며 사회적인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술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다른 영역의 예술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폭넓고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예술교육은 예술적 표현을 중시하고, 학생들은 교과목 '예술의 역사'에서 직접적으로 예술 작품들을 경험하게 된다.

독일 초등학교 음악과의 내용영역을 살펴보면, '음악 만들기', '음악 듣기', '음악 바꾸기' 그리고 '음악 이해하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음악 만들기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을 포함하는데, 특히 이 영역에서는 발성법, 목소리놀이, 음향놀이 그리고 악기반주 활동 등이 중심이 된다. 음악듣기 영역에서는 듣고 구별하기, 형식 파악하기, 들은 후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등이 핵심을 이루며, 음악 바꾸기 영역에서는 신체동작, 무용, 무대표현, 그림표현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음악 이해하기 영역에서는 그림악보 및 전통악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음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음악수업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어린이들의 사회성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교육은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 어린이들과의 합창, 합주 등의 활동을 제공하여 서로 간에 친숙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한다.

핀란드의 음악교육의 임무는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음악적 활동을 장려하며, 자기 자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음악이 생활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역시 음악 교육의 임무이다.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감성적 태도를 길러주고, 음악탐구적인 태도를 발전시켜 주기 위하여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협동하여 음악 창작하기는 책임감, 건설적

인 비평, 다양한 문화와 기능을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길러 준다.

6개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 '즐거운 생활'에 대하여 연구를 할 때 숙고해 보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성취되어야 할 목표와 내용을 큰 틀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지역 또는 학교가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4개의 국가에 독립된 음악 교과가 있다는 점은 즐거운 생활의 구성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미술은 같은 예술이라고 하지만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이 혼합됨으로써 각각의 예술적 특성을 잠식시키는 지금의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각각의 예술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음악중심 통합예술' 그리고 '미술중심 통합예술'이라는 형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많은 국가들은 음악교과에서 신체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신체의 리듬은 음악적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점에서 미래에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제외시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신체활동을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타 교과와도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음악에 대한 애호심, 창의성 계발, 폭넓은 음악적 경험, 음악적 표현 능력 향상, 즐거운 생활 함양, 미적 감수성 계발, 비평 능력 기르기,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음악 이해하기 등을 중시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감정적·심동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골고루 이러한 영역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즐거운 생활이 단순히 '즐겁게 논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인지적·감정적·심동적으로 골고루 체험함으로써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관찰하고 성취목표의 도달정도를 평가한다. 기능적인 면에서 기초적인 정도의 수준만을 요구하고, 개인 혹은 공동체 활동에서 학습의 발전상태 그리고 학습의 결과를 기록하여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과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수준이다. '즐거운 생활'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다양한 학습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2009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9). 2009 개정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과학과,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시안. 2009 개정초등학교저학년통합교과, 과학과, 체육과 교육과정세미나 자료집(10.9). 교육과학기술부, 부산광역시교육청 (2009).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사례(일본). 교육과정자료-442.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9).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제8차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7. 24)
- 김진숙 (2006). 교육과정의 연계성 탐구: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4(4), 83-108.
- 성경희, 양종모, 이경언 (2004).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경희, 양종모, 이경언, 장기범, 권덕원, 홍진표 (2005).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개발.
- 이경섭외 (1994). 교과통합의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성기, 이경언, 장기범, 윤명원, 민경훈, 주대창, 최은식, 한지연, 김선희 (2008).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개발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 교과, 체육, 과학 교육과정 개정 연구 포럼
- Art and Design [Brochures]. (2007).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London, England.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0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 Vammala, Finland: Vammalan Kirjapaino Oy.
-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Indiana's Academic Standards for Visual Art*. Retrieved June 25, 2010.
- Ministère èducation national(2008), *French Curruculum Kindergarten & Primary School*, French: Ministère èducation national
- Ministerium fu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u.a.(2009). *Rahmenplan, Grundschule, Kunst*, Germany: Roggentin
- Ministerium fu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u.a.(2009). *Rahmenplan, Grundschule, Musik*, Germany: Roggentin
- <http://dc.doe.in.gov/Standards/AcademicStandards/PrintLibrary/arts.shtml>
- <http://dc.doe.in.gov/Standards/AcademicStandards/index.shtml>
- <http://curriculum.qcda.gov.uk/new-primary-curriculum/index.aspx>
- http://www.oph.fi/english/publications/2009/national_core_curricula

ABSTRACT

The Analysis of Music Curricular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in Six Countries: Japan, USA, UK, France, Germany and Finland

Min, Kyung-Hoon

In this study, the author will find any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model of 'Happy Life', a Korean integrated subject of the 1st and 2nd grade, by looking at the tendency of recent music education for foreign 6 elementary schools' 1st and 2nd students.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analysis of an education course and the author considered and analyzed formation and composition of music and education course (its characteristic, target, contents, lecturing & studying method, and estimation). The nations for this research are Japan, USA, England, France, Germany and Finland.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an independent subject such as 'Music' or music from the art related subject has been taught for the elementary schools in the above 6 foreign nations and the author found that any body expressing activity has been performed very important in music activity. Also, understanding music and uplifting sociality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was found to be taught very important from the viewpoint of devotion for music, developing creativity, various experience for music, enhancing the expressions of music, developing esthetic sensibilit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from the music relating subjects.

key words: music education, music in elementary school, music curriculum

투고일: 2010년 9월 30일, 심사(수정)일: 2010년 11월 1일(11월 15일), 게재확정일: 4월 12일